

## 해방 이후 충남 강경(江景)의 ‘개성상인’과 면직물 직조업\*

\*\*김혜숙

1. 머리말
2. 한국전쟁 전후 개성 사람의 이주와 직조업
  - 1) 직물공장의 설립과 ‘개성베’의 등장
  - 2) 개성 사람의 신규 유입과 직물공장의 증가
3. 강경 직조업계를 주도한 개성상인
  - 1) 개성상인의 비중
  - 2) 역직기의 도입과 경쟁력 제고
4. 개성 출신 강경 직조업자의 특징
  - 1) 강한 결속력과 상부상조 정신
  - 2) 높은 자기자본 비율과 신용 중시
  - 3) 겸업을 꺼리는 태도
5. 맺음말

\*\*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강사

###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에 거주하던 개성상인(開城商人)이 주로 종사해 온 면직물 직조업에 주목하고 그 특징과 변화를 고찰한 연구이다. 개성상인이 이미 다수 이주해 있던 강경에 개성 사람이 대거 신규 유입된 것은 한국전쟁 전후였다. 이들은 강경에 들어와 면직물 직조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였는데, 이 선택에는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점, 이미 직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동향인(同鄕人)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출신지인 개성이 직조업이 활발한 도시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강경 직조업계를 주도한 개성상인은 자신이 개성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영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동향인끼리의 상부상조, 신용 중시, 외상과 빚을 피하고 자기자본으로 사업하기, 겸업을 꺼리고 한우물 파기 등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개성상인의 특징에 부합하므로, 강경의 개성 출신 직조업자들이 개성상인의 명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성상인으로서의 특징이 강경의 직조업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자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개성상인의 특성상 사업 규모가 커지기 힘들고, 새로운 투자와 혁신이 늦어져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소창이라는 핵심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실패한 강경의 개성상인 대부분은 당대에서 폐업을 맞았다.

---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이라는 소도시에 거주하던 개성상인의 생업 활동과 상호 협력양상에 주목하고, 그 특징과 변화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강경의 개성상인이 주로 종사하던 업종이 개성이라는 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특히 직물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상공업자로서의 행태가 기존에 알려진 ‘개성상인’의 특징에 부합하는지 또는 ‘개성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한으로 이주한 개성 사람이 정착지에서 개성상인으로서 활동하는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필자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sup>1)</sup> 강경은 조선 후기 3대 시장의 하나로 일컬어지던 곳으로,<sup>2)</sup> 조선 후기부터 개성상인이 상거래를 위해 찾던 지역이었다.

18세기 이후 강경은 금강유역의 최대장(最大場)이었고, 금강(錦江) 연안 각 포구들은 강경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상품 유통권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조선 후기 강경은 경강(京江)을 물론 영산강·낙동강 유역의 여러 시장을 비롯해 강진 및 영암, 제주도, 개성, 덕원의 원산포, 창원의 마산포, 삼척, 진도 등과 선운(船運)으로 연결되어 있었다.<sup>3)</sup> 그 가운데서도 개성과 강경포는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활발히 거래하는 관계였는데, 두 도시가 당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상품시장이었기

1) 2019년 2월 18일 현재 강경읍의 규모는 면적 약 7.01㎢, 인구 10,026명, 4,663가구이다.(논산시 홈페이지 강경읍 안내(<http://www.nonsan.go.kr/kor/html/sub06/06020101.html>), 2019.02.18. 검색).

2) 강경이 ‘3대 시장’이었다는 말은 강경 지역에 구전으로도 전해지지만 일제강점기에 나온 문헌에도 등장한다. 1910년 坂上富藏이 쓴 『最近江景事情』(京城：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2·107面)에는 강경이 평양, 대구와 함께 古來 조선의 3대 시장의 하나여서 ‘市의 江景’이라는 명칭이 널리 조선 전역에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조선총독부 소속이었던 첸쇼 에이스케가 쓴 정책자료에도 조선의 “3대 시장으로는 대체로 대구, 평양, 강경을 들었으나, 평양 대신 김천시장 또는 개성, 공주시장을 넣기도 한다(善生永助, 『朝鮮の市場』, 京城：朝鮮總督府, 1923, 29面).”고 했다.

3)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163-180·448-457쪽; 李榮昊, 『19세기 恩津 江景浦의 商品流通構造』,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205쪽.

때문이다.<sup>4)</sup> 1893년 기록에도 다수의 송도 상인이 논산과 황산(黃山)에 진출하였고, 이들이 숙식뿐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매집까지 객주에게 의뢰하였다는 내용<sup>5)</sup>이 눈에 띈다. 여기서의 ‘황산(黃山)’은 바로 강경을 황산리 일대로, 19세기에도 강경과 개성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후 1910년대에는 각 지방상인의 자각으로 개성상인의 세력 범위가 위축되자 개성상인이 방향을 바꿔 충청도 일대로 비약하였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sup>6)</sup> 이 시기 강경을 포함한 충청도는 개성상인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개성상인 중에서 강경에 상업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체류 또는 이주를 하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도 개성 사람의 강경 이주는 드물지 않았다. 이렇게 “일제 때 내려온 개성사람들은 대부분 ‘3대 시장’ 바랍타고 내려온 사람들<sup>7)</sup>”이라 하므로, 강경의 상황(商況)이 이주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920년대 말에는 강경의 특색으로 조선인 상가(商家)의 유력자 가운데 개성 방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많고, 강경의 조선인 상점 중에도 개성에서 내주(來住)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 꼽힐 정도였다.<sup>8)</sup> 강경에 개성상인이 많이 거주했던 사실은 1921년 7월 10일 결성된 ‘강경향우친목계(江景鄕友親睦契)’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경향우친목계는 “경기도에서 내류(來留)하는 일반상업계급(一般商業階級)의 인사(人士)만을 포괄(包括)하여 상업(商業) 확장(擴張)과 환난상휼(患難相顧) 등 돈후친목(敦厚親睦)의 목

4) 高東煥, 위의 책, 1998, 79·180쪽.

5) 『京畿道及忠清道地方并ニ農況視察報告』, 『通商彙報』 제1호 부속 雜之部, 32쪽(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92쪽 재인용).

6) 吟月生, 『開城及開城人』, 『半島時論』 2권 7호, 1918.07, 18쪽(양정필, 위의 논문, 2012, 159쪽 재인용).

7) 전상호(1936년생, 남, 개성상인 2세) 씨 제보(2007.09.04.).

8) 坂上富藏, 『江景事情』(附 米ノ江景), 群山: 町井印刷所, 1928, 23, 24面. 사카카미 토미조(坂上富藏, 1877~?)는 1905년 조선에 와 강경에 자리 잡았고, 1907년 강경일본인회 평의원을 시작으로 1921년 3월부터 1925년 5월까지 강경면장, 1926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강경읍장 및 강경읍 변영회장을 1935년 2월까지 역임한 인물이다.(조선공로자명감, 542쪽;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 표창자명감, 963쪽(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im\\_215\\_13895](http://db.history.go.kr/url.jsp?ID=im_215_13895)))

적으로써 창립(創立)되었는데 회원 육십육인(六十六人)인 단체였다.<sup>9)</sup> 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주한 상인을 계원으로 하였는데, 1926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강경향우친목계를 “충남(忠南) 강경(江景)에 잇는 개성인(開城人)으로 조직(組織)된 향우친목회(鄉友親睦會)”<sup>10)</sup>라 하여 구체적으로는 개성 사람, 그 중에서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직한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을 결성할 정도로 강경에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던 개성 상인이 각기 어떤 업종에 종사했는지는 자료의 한계상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경에 거주하는 개성상인 가운데는 특히 포목점과 조끼방<sup>11)</sup>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당시 강경에서 포목점을 흔히 ‘송방(松房)’이라 부를 정도로 강경 직물판매업계에서 개성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한다.<sup>12)</sup> 실제로 일제강점기 강경의 대형 포목점으로 손꼽히던 1920년대의 차두철상점<sup>13)</sup>과 1930년대의 강경상회,<sup>14)</sup> 금호상회<sup>15)</sup>의 경영자는 모두 개성상

9) 1921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 「江景鄉友親睦契」.

10) 1926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 「李王殿下昇遐로 各地集會延期」.

11) 조끼방은 재봉틀로 주로 한복 조끼를 만들지만 그 외에도 간단한 의복이나 짚구 집 깎기와 같은 소품 등을 만들어 주던 점포를 가리킨다.

12) 조병환(1932년생, 남)(2007.07.13., 2007.09.03.), 전상호(1936년생, 남, 개성상인 2세) 씨 면담내용(2007.09.04.)

13) 개성 출신의 차두철(1880년생으로 추정)은 1923년과 1926년 면협의회원, 1928년 소방조 副組豆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홍교동에서 ‘차두철상점’을 운영했다. ‘차두철상점’은 1901년 홍교리에 들어선 최초의 상점으로, 옷감 판매와 훈수품 도산매 등을 했다(張在洽,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京城: 副業世界社, 1927).

14) 193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에 「江景紹介版(續)」을 발행하는 기념으로 조선일보 강경 지국은 신용상점 투표를 실시하였고, 이때 9,662표를 얻어 1등으로 당선된 것이 강경상회(江景商會)였다. 이에 따르면, 강경상회는 緞緞錦巾과 婚具一式, 家具 등을 판매하는 주요상점으로, 10만원의 자본을 들어 1933년(昭和 8)년 봄부터 경영하기 시작했다. 강경상회는 2층 벽돌제 양옥이 점포이며, 십수 명의 점원이 1일 천 상, 사백 원의 매상을 올리는 대상점이다. 주인 오기형(吳基亨) 씨는 개성 출생으로, 공주 영명고보를 일찍이 졸업하고 가업을 도와오다가 혜성과 같이 강경실업계에 진출한 상인인 바, 수춘 도매부까지 신설하고 멀리 금산, 대전 등지며, 부여, 은산 등지에 거래를 가져서 강경상업계를 獨保하는 觀이 있으며, 지배인 김원회(金元會) 씨는 敏腕을 가져서 실업계의 기된아로 전도가 매우 유망하여 同商會의 비약적 발전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정현중(1923년생, 남, 황해도 해주 출신) 씨와의 면담 내용(2006.06.29.)에 따르면, 일제 때 홍교리에 강경상회라고 포목상이 컸는데, 익산에 지점을 두고 했고 일본과 직거래를 했다고 한다.

15) 금호상회는 원래 강경여관을 하던 오수옥(吳秀玉)이 2층 반으로 신축하여 문을 연 포목점으로 해방 당시 강경에서 제일 높은 집이었다.(조병환(193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4.13., 2007.05.31.)) 오수옥은 1924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개성수해동정」에 따르면 강경의 개성상인이었다.

인이었다. 원래 ‘송방’은 전국을 무대로 상업을 영위했던 개성상인이 조선 후기에 전국의 주요 지역에 설치했던 일종의 지점으로서, 개성상인은 이곳에 차인(差人)을 상주시킴으로서 각지의 정보를 입수하고 상품의 매집과 유통 과정을 장악하도록 했던 곳이다.<sup>16)</sup> 따라서 송방이라는 호칭으로 포목점이 불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강경의 포목판매업계에 개성상인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이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개성사람들이 강경에 새롭게 유입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직조업계에 투신하였다. 그 결과 강경에서 생산되던 소창은 1960년대 말까지도 ‘개성배’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이 강경은 시장의 역사가 곧 지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이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이래 1970년대까지 개성상인이 꾸준히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개성상인’ 연구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송상(松商), 즉 개성상인(開城商人)은 개성에 근거지를 두었다고는 하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활동범위와 영향력을 지녔던 한국의 대표적 상인이다.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 한국의 대표 상인으로 손꼽히는 상인 가운데 현재까지도 정체성과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상인은 한국 상업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성상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연구의 주제와 시기, 지역에서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주로 역사학과 경영학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가 가장 많고, 물종으로는 삼(蔘), 그리고 개성상인 특유의 경영 활동이나 기업가 정신, 회계 방식 등에 집중되어 있다.<sup>17)</sup> 반면, 삼 이외의 물종

16)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214쪽; 노혜경·노태협,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한국경영사학회, 2012.06, 128·139쪽.

17) 대표적인 연구를 몇 가지 들면, 역사학계에서는 강만길, 『開城商人 研究』,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1972를 비롯해 박평식, 『朝鮮前期의 開城商業과 開城商人』,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09;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경영학 분야에서는 김성수,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개성상인정신 연구』, 『경영사학』 17-2, 한국경영사학회, 2002.06; 이훈섭, 『개성상인의 상업경영술에 대한 연구』, 『韓國傳統商學研究』 16-2, 한국전통사학회, 2003; 노혜경·노태협,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한국경영사학회, 2012.06,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성호, 『개성 시변제도 연구-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 거래 분석(1887~1900)』,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이장형·이원로·이병

을 취급하는 개성상인이나 분단 이후 활동하였던 중소(中小) 규모의 개성상인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18)</sup>

해방 또는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개성 사람 가운데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남한에서 상업에 종사한 이들이 적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창업자 가운데 개성 출신이 많지 않다고 하여 개성상인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면, 한국 현대 상업사의 중요한 맥락을 놓치는 셈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중소 지역도시 상업계에서 개성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경상인의 연구이기도 하지만, 개성상인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상공업자를 통해 한국의 지방 중소상업도시의 변화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강경 거주 개성 출신 면직물 공장 기술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강경의 개성상인의 활동을 기억하는 지역민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sup>19)</sup> 기타 회사조합자료,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와 상업사 관련 기존 연구 성과 등을 병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

원, 『사개송도치부법의 복식부기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10(2), 한국전산회계학회, 2012.12 등을 들 수 있다.

18) 분야를 떠나 근래 개성상인에 대한 논문을 가장 꾸준히 발표해온 학자는 양정필이다. 그는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삼업자본의 성장』, 『학림』 23권, 연세사학연구회(구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2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사논문을 포함해 총 15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개성상인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개성상인을 연구하는 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삼업(參業)의 비중이 크고 해방 이후를 다룬 연구는 적다. 다만, 그의 『월남 개성인의 정착 과정과 開城의 遺産』, 『學林』 42, 연세사학연구소, 2018.9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정착한 여러 업종의 개성상인을 연구하였는데, 개성의 지역적 전통과의 관련성이나 개성인의 결속력과 유대감에 주목한 점은 본 논문과 공통적이지만 인삼업이 주대상이고 문헌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 본문에서 인용한 면담내용은 정보제공자의 구술을 있는 그대로 녹취한 것은 아니며, 2006, 2007, 2008, 2019년 강경에서 필자가 조사한 내용 중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성명, 상호 등은 신문이나 기타 공간(公刊)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 2. 한국전쟁 전후 개성 사람의 이주와 직조업

### 1) 직물공장의 설립과 ‘개성베’의 등장

강경 사람에게 개성상인의 존재는 일제강점기의 ‘송방’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에 번성했던 ‘개성베’ 또는 ‘개성직’이라는 면직물로 더 많이 기억된다. 개성베는 면사(綿絲)로 성글게 짠 ‘소창’이라는 면직물로서, 소창 직조공장을 강경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이주하여 조끼방을 하던 최수현이다.

개성베 공장은 최수현 씨라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원조이다. 원래 일제 때 개성에서 내려와 일본 군수품 봉제업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 문을 닫고, 당시 개성에서 유행하던 수직기를 들여와 개성베 공장을 시작하셨다.<sup>20)</sup>

그렇다면 1910년대 후반 출생인 최수현이 해방 이후 개성에서 수직기를 들여와 ‘송도직물’이라는 면직물 직조공장을 시작한 것은 왜일까? 위에서 보듯이, 해방 이후 개성에서 수직기를 가지고 면직물을 생산하는 직조업이 크게 유행했던 것은 또한 어떤 연유일까? 그 유행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송고실업장(松高實業場)<sup>21)</sup>의 존재다. 송고실업장은 경성방직과 함께 해방

20)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21) 개성의 송고실업장은 유명한 ‘松高織’을織出하는 공장으로, 원래 미국 남加里교회 선교부의 경영인 현 송도고등보통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공장이다 근대적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 모로 제품생산을 하여, 주로 해외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1926년 공장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에 김정호 등 개성의 실업가 몇 명이 모여 송고실업장의 공장설비 및 부지, 명칭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1929년 2월 15일 자본금 20만원에 달하는 松高實業場(株)을 개성부고려정 123번지에 설립하였다. 같은 해 2월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1929년 9월 현재 60여 종의 송고직과 송고양말을 매일 직출하는데 연산액이 20만원, 판로는 26개국에 달했다고 한다.(1929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 『世界市場에 雄飛하는 松高實業場の 躍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 중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1926년 타격을 입기 이전 송고실업장의 활발한 생산활동은 1924년 현재 생산액(256,275円)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조선내 존재하던 조선인 소유의 직물업체 중 경성방직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권태억, 『韓國近代綿業史研究』, 일조각, 1989, 264쪽 참고)

전 토착민족자본으로 운영되던 2대 면섬유업체로 꼽히며, 한국의 염색가공사에서 염색기술 및 그 시설에서 가장 빨리 현대화가 이루어진 업체로 평가되는 곳으로 1929년 개성상인들이 인수한 이후 한국전쟁 당시까지도 순조롭게 가동되었던 공장이다.<sup>22)</sup>

그런데 기계화된 송고실업장은 개성에서 수직기 면직물 직조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개성 출신 섬유공학자 우지형(禹志亨, 1917년생)<sup>23)</sup>의 기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이미 “급진적으로 수직기에 의한 직물공업이 송고실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개성시내에서는 당시 골짜마다, 집집마다 수직기 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성은 수직물의 명산지(중심지)가 되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가내공업의 진흥이 퍼져 나갔다. 이렇게 수직기에 의한 직물공업의 발달, 번성을 가져오게 된 것은 송고실업공장에서 양성된 개성시내 거주 기술자, 기능자 및 운영 경험자 등 많은 인적(人的) 자원(資源)에 기인한다.”<sup>24)</sup>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해방이 되면서 섬유제품, 특히 면직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방직공장의 생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자 수직기까지 동원되면서 수직기의 수가 점차 늘어났는데, 일반가정에서도 수직기로 면직물을 짜는 곳이 많았던 개성에서 특히 현저하여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개성시는 온통 수직물 생산도시로 변하였고, 개성 곳곳에 생겨난 염직소는 대부분 송고실업장 염색부에 근무했던 경험자들이 경영하는 곳이었다고 했다.<sup>25)</sup>

개성에는 송고실업장에서 면직물 직조 및 염색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인적 자원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면직물 수요가 폭증할 때 개성 시

22) 장석윤·우지형·이덕기·박남석 공저, 『한국근세과학기술100년사조사연구-섬유분야-』, 한국과학재단, 1992, 48-49·288·324쪽.

23) 우지형은 1917년 개성에서 출생하였고, 송고고보를 다니다가 서울의 경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 개성 근처의 서흥산업조합과 개성상업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후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로 진학하여 졸업한 인물이다. 해방 이후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전주전모방직회사, 한영방직주식회사, 마산방직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1970년부터는 단국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로 활동하였다.(서문석, 『책머리에』, 『고급기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본 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2006)

24) 장석윤·우지형·이덕기·박남석 공저, 앞의 책, 1992, 51쪽.

25) 장석윤·우지형·이덕기·박남석 공저, 위의 책, 1992, 332쪽.

내 일반가정에서조차 소규모 가내공업 형식으로 수직기를 들여놓고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개성은 강경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던 지역이고, 그곳에 여전히 일가친척이 거주하던 최수현이 섬유공업도시로 변모하는 개성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전시체제기의 통제 경제를 겪은 이후인 데다가 해외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늘어나 전국적으로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최수현은 면직물 직조업에 주목하였고, 개성에서 수직기를 가져와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조업으로 전업한 강경의 다른 개성상인들 역시 광복을 전후로 면직물 직조와 염색 기술이 발달한 공업도시로 발전하던 개성의 영향을 받아 직조업을 생소한 분야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수현을 포함해 강경의 개성상인에게 면직물 직조업은 고향인 개성과 관련이 큰 업종이자, 자신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기술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분야였던 것이다.

## 2) 개성 사람의 신규 유입과 직물공장의 증가

개성상인의 직조공장이 처음 등장한 이후 강경 안에서 소창 직조공장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해방 이후로도 줄곧 남한이었던 개성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에 속하게 되자, 개성 사람들은 본격적인 피난에 나섰고 강경에도 개성 사람의 신규 유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1951년 1.4후퇴 이후 강경에 들어온 개성 사람의 대다수는 소창 직조업에 가세하였고, 이로 인해 직조공장의 운영자나 기술자, 직공 가운데 개성 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강경에서 유명한 것은 벧공장이었다. 개성 다음이 강경이었는데, 왜정 때부터 개성에서 내려와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6.25 때 다시 피난을 내려와서 더 많아졌다.<sup>26)</sup>

---

26) 성영섭(1931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03.03.).

강경 소창이 번성했다. 강경이 원래 남한 일대에서 소창베가 유명했고, 베 짜는 곳이 50군데도 넘었다. 큰 테만 쳐도 30군데는 넘었는데, 베 짜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성사람들이었다. 개성사람들이 여기로 피난 와서, 짜기 시작했다.<sup>27)</sup>

강경에는 개성사람들이 ‘개성직’이라 해서 주로 그걸 짜서 생활을 했는데, 전국에서 알아주었다. 해방 후에 일부 들어왔고, 6.25 이후에 많이 늘었다.<sup>28)</sup>

이들 가운데는 유중현(1922~2009)의 덕홍직물과 같이 개성에서부터 이미 직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도 있어서, 아예 정착 초기부터 자신의 직조공장을 설립한 사례도 있다.

개성에서 살다가 내가 4살 때인 1950년에 강경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강화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대구로 피난가서 한 3, 4달 있다가 강경으로 왔다. 아버님 말씀이 강경의 고향 사람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온 거라고 하시더라. 아버지도 강경이 처음은 아니었고, 개성도 3대 시장이고, 강경도 3대 시장이어서 일제 때 몇 번 다녀가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 어차피 남쪽 지방은 다 모르니까, 고향 사람도 살고 외본 적도 있는 곳이어서 강경에 정착하신 거다. 아버지는 개성에서부터 수직기로 소창을 짜셨고, 강경에 와서도 처음에는 수직기로 소창을 짜셨다.<sup>29)</sup>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 공장을 연 사례보다는 개성상인의 직조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독립하거나, 그곳에서 기술을 배운 후 집에 기계만 들여놓고 운영한 경우가 더 많았다.

어머니가 강경에서 개성 배공장을 운영하신 덕에 8남매를 다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굉장히 수단 좋고 적극적인 개성 분인데, 개성 배공장에 가서

---

27) 심민수(1931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05.17., 2007.05.03.).

28) 심동호(1934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09.20.).

29) 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그 일을 배워 오신 후 집에 기계를 점차 늘어가면서 공장을 하셨다.<sup>30)</sup>

급히 피난하게 되면서 개성에서 충분한 준비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주한 대부분의 개성 사람은 일단 강경에 들어와 먼저 정착한 동향인의 집에 의탁하여 생계를 도모하였다. 당시 이들을 수용한 대표적인 곳이 개성 출신 직조업자 최수현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직조공장에 취업한 개성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강경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전쟁 때 강경에 온 개성사람을 작은 아버지(\*최수현) 네서 처음에 한 30여 명을 데리고 식사도 시키고 일도 시키면서 데리고 있다가, 기계도 주고 쌀도 주고 면사도 주면서 제금을 내 주었다. 개성사람들이 작은 집에 모이고 그랬다.<sup>31)</sup>

이러한 경향은 강경만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개성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개성 사람을 살펴보면, 개성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에 취직하여 회사 운영을 도우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고, 기업인이 된 개성 사람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동향인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여서 어떤 일이든 우선적으로 동향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sup>32)</sup>

게다가 해방 이전부터 강경에 거주하며 조끼방이나 송방을 운영하던 개성 상인 가운데도 한국전쟁 이후 직조업계에 참여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광성직물, 금성직물, 한성직물과 같이 조끼방을 운영하던 개성상인이 공장을 설립 하기도 하고,<sup>33)</sup> 대형 포목점 강경상회의 2세와 같이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어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직조공장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4)</sup> 따라서 이들이 소창 직조업에 진입하게 되는 데는 개성

---

30) 유인철(194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06.01.).

31)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32) 양정필, 앞의 글, 2018, 36쪽.

33)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27.); 조병환(193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3.07., 2007.06.26.).

34) 전상호(1936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9.04.).

출신이라는 지연(地緣)이 작용했는데, 공장 설립과 공장 취업으로 선택지가 갈린 것은 경제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강경에 거주하던 개성상인마저 일부 소창 직조업으로 전업(轉業)하게 된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강경 거주 개성상인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과 상업적 기반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강경에서는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1,300세대가 전소되고 시내가 온통 불바다가 될 정도의 큰 불을 겪었고, 이로 인해 개성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유지와 상인층 상당수가 물적 기반을 잃고 해체되었다.<sup>35)</sup> 폭격 이후에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남아있는 농민과 달리 상인의 경우 점포와 상품이 소실되면서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강경의 유지와 상인층 상당수가 해방정국에서 좌·우익 청년활동에 연루되어 한국전쟁 당시 학살 또는 행방불명되었고,<sup>36)</sup> 개성을 포함해 강경의 이북 5도민 가운데 월북한 이들도 있어 개성상인이 기존 강경 내 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재기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개성 출신이라는 지연을 활용하여 소창 직조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개성상인과 새롭게 유입한 개성 사람이 경영자 또는 직공으로 직조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강경에서는 소창을 ‘개성배’ 또는 ‘개성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강경은 1950년대 전국적으로 주요한 소창 생산지로 부상하였다.

---

35) 김해숙, 『1950~1970년대 江景 商人의 존재양상과 상거래 관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9, 3-4쪽.

36) 한국전쟁 중 강경이 북한군 치하에 있었던 것은 1950년 7월 17일부터 미 25사단이 강경을 탈환한 9월 29일 사이의 두 달 남짓한 기간이다(www.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시대별연표 참조). 한국전쟁 당시 강경에서 학살된 유지와 청년들이 관계한 우익단체로는 대한청년단, 국민회, 대한노총, 대한부인회, 민족청년단, 청년방위대, 호국대 등이 있었다.

### 3. 강경 직조업계를 주도한 개성상인

#### 1) 개성상인의 비중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강경 내 직조공장에서 개성상인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 1950년대 강경에 존재하는 면직물 직조공장을 당시의 회사조합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표 1>을 보면, 대표명을 진하게 밑줄 친 곳은 현지조사를 통해 면직물 직조공장의 대표자가 개성 출신자임을 확인한 곳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강경 안에 1956년 13곳 중 6곳, 1957년 기준 25곳 중 11곳, 1959년 30곳 중 11곳이 개성 사람의 공장이어서, 공장의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개성사람의 비중이 낮은 듯 보인다. 어쩌면 이것은 필자의 현지조사가 충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공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 시기 가장 규모가 컸던 송도직물(이후 ‘강경직물’로 상호 변경), 덕흥직물, 의신직물의 대표자가 모두 개성상인인데다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공장 기술자로 옮기거나 지점을 열거나 자기 명의의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므로 개성 사람의 영향력은 컸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로도 조업을 계속하던 직조공장은 공장의 규모가 영세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개성상인의 공장이었다.<sup>37)</sup> 구체적으로 보면, 1975년 12월 10곳 중 8곳, 1991년 12월 기준으로 7곳 중 6곳이 개성상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한 회사조합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표 1>의 이기현, 이삼덕, 이한성, 최구현, 최용현, 최호정, 최호준 씨가 운영했다는 7곳의 공장은 1960년 이후 독립한 사례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전부 개성상인의 업체였다.

---

37) <표 1>에서 보듯이, 강경에서 1970년대 공장을 운영한 10곳(임병호의 동서직물공장은 ④1976년도 『논산군지』에는 누락되었으나, 1991년에도 조업하고 있었으므로 1975년에도 조업한 것으로 간주함.

〈표 1〉 1950~1990년대 강경읍에 존재했던 면직물공장

No	대표	회사명	주소	①	②	③	④	⑤	비고
				56-07	57-12	59-03	75-12	91-12	
1	姜甲干	永昌織物工場	채산동						
2	<b>姜致昊</b>	錦江織物工場	태평동						㉠개성/13인계 ㉡덕홍직물 인적
3	金基在	東和織物工場	채산동						
4	金明殷	三星織物工場	대흥동			본점			㉠황해도
5	金炳圭	論山織物工場	남교동						→ 論 織物工場
6	金玉童	東光織物工場	채산동			지점			
7	金泰坤	大成織物工場	중앙동						
8	金顯九	東興織物工場	동흥동			본점			
9	柳丙錫	朝光織物工場	황산동						
10	閔吉重	兄弟織物工場	흥교동						
11	朴魯華	湖南織物工場	흥교동			본점			
12	朴成來	東光織物工場	채산동			지점			
13	朴順周	大興織物工場	대흥동						
14	朴燦喜	中央織物工場	중앙동						
15	朴台鎭	二和織物工場	대흥동						
16	<b>朴浩然</b>	世一織物工場	태평동						㉠개성/13인계/송도직물 에서 독립
17	<b>朴洪陽</b>	江景織物工場	흥교동			지점			㉠개성/13인계/송도직물 에서 독립
18	朴興陽	新興織物工場	흥교동						
19	<b>方貞然</b>	明德織物工場	흥교동						㉠개성
20	<b>徐命元</b>	大光織物工場	흥교동						㉠개성/개성상회 ㉡13인계
21	宋炯基	朝日織物工場	북옥동			지점			
22	梁聖奉	東光織物工場	흥교동			지점			
23	<b>劉在善</b>	德興織物工場	중앙동			본점			㉠개성 ㉡13인계 → <b>유중현</b>
24	尹德重	東亞織物工場	북옥동			본점			→ 57년 東西織物
25	尹東初	東光織物工場	채산동			지점			
26	尹東輝	南昌織物工場	채산동						
27	尹 薰	五倫織物工場	북옥동						
28	<b>李慶錫</b>	廣盛織物工場	흥교동						㉠개성/13인계
29	李南植	江景織物工場	흥교동			지점			
30	<b>李義信</b>	義信織物工場	중앙동			지점			㉠개성/13인계 *59년 덕홍직물 지점
31	李仁漢	漢城織物工場	중앙동						㉡금산/13인계

No	대표	회사명	주소	①	②	③	④	⑤	비고
				56-07	57-12	59-03	75-12	91-12	
32	李鼎浩	錦南織物工場	홍교동						㉠개성
		和盛織物工場	홍교동						
33	李俊炯	弘仁織物工場	홍교동						
34	李泰炯	東光織物工場	홍교동			지점			
35	林道明	林道明織物工場	홍교동						
36	林道相	道相織物工場	홍교동			지점			㉠개성 *59년 湖南織物 지점
37	林漫洙	朝日織物工場	북옥동						
38	林炳虎	東西織物工場	북옥동			지점			㉠개성/13인계 → 91년 개성직물
39	鄭錫煥	東興織物工場	동흥동			지점			
40	鄭樂信	錦湖織物工場	남교동						㉠개성
41	鄭樂贊	大鮮織物工場	대흥동						
42	曹榮煥	東光織物工場	홍교동			본점			㉠송도직물에서 독립 ㉠개성/13인계
43	趙鏞日	朝日織物工場	북옥동			본점			㉠금산/13인계
44	趙昌衍	東光織物工場	홍교동			지점			
45	崔基錫	東信織物工場	채산동						
46	崔北鉉	松京織物工場	홍교동						㉠개성
47	崔守鉉	송도직물공장	홍교동			본점			㉠개성 ㉠13인계 → 江景織物工場 → 청원직물공장
48	崔浩鳳	湖南織物工場	홍교동			본점			㉠개성/13인계 → 한성직물공장
49	黃秉玉	忠南織物工場	홍교동						
50	이기현	남선직물공장							㉠개성
51	이상봉	삼덕직물							㉠개성 ㉠13인계
52	이한성	금성직물공장	홍교동						㉠개성 ㉠13인계
53	최구현	■■■직물공장							㉠개성, 송도직물에서 독립 ㉠13인계
54	최용현	■■■직물공장							㉠개성
55	최호경	영재직물공장	홍교동						㉠개성
56	최호준	■■■직물공장							㉠개성

\* 자료 출처 : 아래의 표는 한국역사통합정보(<http://www.koreanhistory.or.kr/>)의 회사조합자료 3건(①『全國主要企業體名鑑(1956년판)』(1956년 7월 기준), ②『全國企業體總攬(1958년판)』(1957년 12월 기준), ③『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1959년 3월 기준), ④『논산군지』(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76, 256쪽)(1975년 12월 기준)), ⑤『논산군지』(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94, 1186쪽)(1991년 12월 기준), 본인이 현지조사한 내용(㉠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유계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을 근거로 정리하였음.

추가로 정리한 업체를 포함해 강경에서 소창 직조공장을 하는 개성상인들은 개성이라는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 직업 관계로도 서로 얽혀 있었다. 이를테면, 송도직물, 즉 강경직물 최수현의 친인척(박홍양, 최복현, 최호봉, 최구현, 최용현, 최호정, 최호준), 한성직물 최호봉의 인척(방정목), 덕흥직물의 인척(강치호)이라는 혈연, 또한 최수현의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를 양도받거나 창업 때 도움을 받아 독립(박호목, 박홍양, 조영환, 최구현, 최호정 등), 강경직물의 지점(박홍양, 이남식), 덕흥직물과 일시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이의신)도 있었다. 따라서 강경의 개성배 직조업체는 다양한 관계 속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개성사람들이 계를 했다. 13인계라고 해서, 직조공장하는 개성 사람들로 꾸린 계였다. 1년이면 몇 번씩 놀러 같이 다니고 그랬다. 개성 사람들끼리 명절 때가 되면,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어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아이들은 세배 다니고 그랬다.<sup>38)</sup>

소창 직조공장을 경영하는 개성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모임이 생겨났다. 동업조합을 조직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개성상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sup>39)</sup> 동업자 단체는 아니지만 ‘13인계’ 또는 ‘형제계’라고 불리던 친목계를 만든 것이다. 13인계의 계원은 대부분 소창 직조업을 하는 개성 출신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 직조업자와 면사 판매업을 하는 개성상인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0)</sup> 비록 사적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동

38)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39) 김성수, 앞의 글, 2002.06, 33쪽.

40) 최호민(1935년생, 남)과 최영수(1957년생, 남) 씨는 13인계를 개성 출신 직조업자만의 모임으로 회고하였지만, 유재섭(1947년생, 남) 씨의 기억은 달랐다. 3인 모두 본인이 계원이 아니라, 부친 또는 숙부가 13인계의 계원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일단 유재섭 씨가 기억하는 13인계의 계원은 부친인 유중현(덕흥직물)을 비롯해 이한성(금성직물), 서명원(대광직물), 이의신(의신직물), 임도상(도상직물), 조영환(동광직물), 임병호(동서직물), 이상봉(삼덕직물), 최수현(송도직물), 최구현(□□직물), 이정우(면사공장)(이상 11인은 개성 출신), 이인한(금산, 직물공장), 조용일(금산, 조일직물) 씨다. 다만, 이들 가운데 서명원 씨가 1960년대 중반 이미 서울에서 활동하였음을 고려하면, 13인계의 계원 구성이 시기에 따라 약간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유재섭 씨의 명단에는

일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계원에게 면사를 공동 구매하는 등 사업적으로도 협력하였다.<sup>41)</sup>

## 2) 역직기의 도입과 경쟁력 제고

1950년대 강경의 개성배 공장은 동력을 이용하여 일관체제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설비를 갖춘 공장은 아니었지만, 수직기(手織機), 족담기(足踏機), 역직기(力織機)의 공존과 대체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면직물 생산의 기술적 변모를 보여준다.<sup>42)</sup> 사실 강경에 개성상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이전부터도 전국적으로 수직기(手織機)를 이용한 면직물의 생산은 있어 왔고, 개성상인 역시 초기에는 수직기를 이용해 강경에서 소창을 직조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직조공장의 대부분이 개성상인 소유였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강경에 동력을 이용한 역직기를 도입함으로써, 가내수공업 수준이 아니라 소창의 공장제 대량생산을 본격화하였다.

처음에는 수족기를 하다가, 족담기, 그 다음이 역직기였다. 수족기는 손하고 발을 다 움직여 짜야 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잡고 해야 하니까, 전에는 상호 없이 집집마다 많았다. 목재로 만든 기계였는데, 아주 시끄러웠다. 족담기는 발로만 하면 북이 움직이고, 쇠 절반에 목재 절반이 섞인 기계였다. 수족기, 족담기 등 기계는 무지하게 시끄럽고 100미터밖에 있어도 구들장이 울릴 정도였다. 그래서 이웃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랬다. 그러다 강경에 들어온 게 서상록직기다. 재일교포

---

없지만, 최영수 씨와 최호민 씨는 최호봉(한성직물)개성 출신) 씨가 13인계의 일원이라 했고, 최호민 씨는 강지호(금강직물), 박호묵(세일직물), 박홍양(송도직물 지점), 이경석(광성직물) 씨(4인 모두 개성 출신)가 13인계의 계원이라고 기억하였다. 차이는 있지만, 개성 출신 직조업자가 중심이었다는 데는 3인 모두 의견이 없었다.

41) 개성배는 타향사람이 해도 망하고 개성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했다. 실을 살 수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조병환(193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2.)

42) 1955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織造界運休 電力難으로』에는 “최근 전력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 유일의 소창직(江景織) 산출지인 이곳 강경 직조계는 완전히 운휴 상태에 빠짐으로써 역직기(力織機) 1백 대와 족담기(足踏機) 1천 5백 대에 종사하던 공원 3천 5백여 명이 직장을 잃고 생활난의 일대불안에 싸이게 되었다 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1955년 11월 현재 강경의 직조공장은 역직기 1백대와 족담기 1천 5백대로 소창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상록 씨에게 충남직물조합을 통해 역직기 100대를 들여와 그것으로 베를 짰다. 그걸 일본에서 들여와 조립할 때도 송고실업장에서 일하던 일류 기사들 셋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군대는 4288년(\*1955년) 12월에 입대했는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서상록직기를 들여왔다. 당시 그 기사들은 40대였는데, 직기를 조립할 때 내가 두 달을 따라 다녔다.<sup>43)</sup>

초기에는 수직기, 족답기를 이용하던 강경의 직조공장에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 1955년 ‘서상록직기’<sup>44)</sup>라고 불리던 역직기 100대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새 기계를 설치하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강경 안을 돌아다니던 기술자들은 개성의 송고실업장 출신이었다. 또한 1960년대 강경직물에서 일하던 기술자 중에도 송고실업장은 아니지만 개성의 직물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개성 사람이 있었다.<sup>45)</sup>

1950년대 소창베공장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강경에는 2대, 3대, 5대, 6대 등 기계 몇 대만 들여놓고, 소창을 짜는 소창집이 한 100집은 되었다.<sup>46)</sup>

직조공장에서 역직기로 소창베를 짜니까, 강경 사람들 중에 수직기로 하던 사람들은 다 걷어치웠다.<sup>47)</sup>

---

43)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44) 최호민 씨가 ‘서상록직기’로 기억하는 역직기에 대하여 1950년대 개성베 공장에서 일했던 개성상인 2세 전상호(1936년생, 남) 씨는 일본에서 이천(利川) 제직기를 들여왔다고 했다.(2007.09.04. 면담내용) 당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제일교포 기업체의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1955년 서상록(徐相錄) 씨가 운영하는 오사카 소재 도시카와산업[利川産業]에서 생산하던 방직기료품(紡織機料品)을 수입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였다.(1955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 「在日僑胞企業體서 導入許容 옥손弗로 紡織機類」) 당시 도시카와산업에서 제작하던 직기의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정부의 수입 허가를 얻자 도시카와 직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본의 사카모토[坂本] 직기에 ‘도시카와’ 이름을 붙여서 들여왔다고 한다. 일본회사였던 사카모토 직기는 도시카와 직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유명한 제품이어서, 실제로는 사카모토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최광준 외 구술, 서문석 편집, 『고급기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본 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2006, 181-182쪽)

45)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27.).

46) 송상기(1930년대생, 남) 씨 면담내용(2007.05.03.).

47)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27.).

강경 내 직조공장에 역직기를 들여놓고 소창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기존에 수직기나 족답기를 이용한 가내수공업 수준의 직물생산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 2대의 기계를 두고 직물을 짜던 집이 주로 강경 사람 또는 인근 지역민이었음을 고려하면, 역직기의 수입과 설치 이후 강경의 직조업계에서 개성상인의 입지는 이로써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성상인이 소창 직조업계를 장악하면서, 강경에서 소창은 ‘개성베’, 소창 직조공장은 ‘개성벧공장’으로 불리고, 소창직조업은 개성상인의 업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4. 개성 출신 강경 직조업자의 특징

##### 1) 강한 결속력과 상부상조 정신

개성상인의 상인정신으로는 대개 “의리와 신용제일주의, 근검절약, 단결과 협동심”<sup>48)</sup>이 가장 먼저 꼽힌다. 이러한 평가는 강경 내 개성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아래의 【1】은 강경 출신 한약상, 【2】는 강경 출신 어물상, 【3】은 황해도 출신 미곡상, 【4】는 개성 출신 직조공장주가 강경의 개성 사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1】 강경에서 개성사람은 ‘개성사람은 죽을 때 머리를 개성 쪽으로 하고 죽는 대’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개성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정보를 나누고 남한 사람들에게겐 정보를 주지 않았다. 개성 사람들은 값은 좀 따끔하게 받아도 속임수는 안 쓴다. 또 짜고 깎쟁이이긴 하지만, 한번 인정한 사람은 잘 밀어주었다.<sup>49)</sup>

48) 김성수, 앞의 논문, 2002.06, 20·33쪽.

49) 조병한(193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11.24., 2007.06.27.).

【2】 개성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자기네들끼리 사주고 그랬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다.<sup>50)</sup>

【3】 나도 이북사람이지만, 이북 사람 중에서는 개성사람들이 최고로 지독하고 장사도 잘 한다.<sup>51)</sup>

【4】 나도 개성사람이지만, 개성 사람들은 얼마나 각쟁이인지 모른다. 오줌을 살 때도 물을 탄 걸 살까봐 맛보고 살 정도였다.<sup>52)</sup>

공통적으로 개성 사람은 동향 사람끼리 단결력이 좋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부상조하지만 인색한 편이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특성은 개성 출신 강경직조업자에게도 나타나는데, 강경 정착 과정과 사업 과정에서 그들의 강한 결속력과 상부상조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상인들은 강경에 먼저 이주한 개성상인이 나중에 이주한 개성사람의 정착과 상업적 성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적(物的), 금전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경에 정착한 이후로도 서로 협력하였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sup>53)</sup>

강경의 개성 사람 1세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어려울 때는 서로 융통하고 그랬다. 개성사람은 남의 돈을 길게 안 빌렸고, 서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sup>54)</sup>

---

50) 윤준일(192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51) 정현중(1923년생, 남, 미곡상) 씨 면담내용(2006.06.08.). 사실 강경에는 개성 출신자뿐만 아니라 이북 5도민의 유입도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황해도 출신자들이 이주하여, 주로 미곡상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는 논산에 수용되어있는 반공포로가 풀려나면서 강경으로 들어와 이북 5도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강경 내 이북 5도민의 인구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1950년대 중반 강경의 150세대가 모여 '이북 5도회'를 결성하였을 정도다.

52)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53) 13인계의 일원이자 직물공장을 하던 A 씨가 실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보증을 개성 직조공장 사장들이 썼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줬다.(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27.))

54) 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강경의 직조공장이 사양길에 들어섰을 때 도움을 주었던 것도 강경 출신 개성상인이었다. 강경의 직조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던 소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소창은 면직물 중에서도 성글게 평직으로 짜기 때문에, 고급직물은 아니었다. 주로 이불속칭이나 호칭, 커튼, 기저귀, 행주, 붕대 등으로 썼지만, 광복보다도 짙 서민용 옷감이어서 화학섬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는 여름용 남방셔츠나 와이셔츠를 만드는 의복감으로도 흔하게 많이 이용했던 직물이다. 초기에는 흰색 소창의 생산이 대부분이었지만,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다보니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무늬와 색깔을 넣은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sup>55)</sup>

소창은 1960년대까지는 그러저럭 잘 되었다. 내가 66학번인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1967년까지는 아주 잘 된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라도 지역의 전쟁 미망인들이 우리 소창을 받아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많이 팔아주었다. 공장을 열고 15년 정도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sup>56)</sup>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아크릴과 아세테이트, 나일론 등 다양한 합성섬유를 국내에서 대량생산하게 되면서,<sup>57)</sup> 1970년대 이후로는 하급 면직물이었던 소창이 일상용품이나 의복감으로서의 상품경쟁력을 잃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고급직물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창의 수요가 감소한 것 이외에도 강경 개성배 공장의 쇠락을 촉진했던 것은 숙련공의 이탈이었다. 직조공장에서 일하던 숙련 여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공장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작업능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1967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에 자세한데, “도내 유일한 개성직물(소창직) 집산지로 알려진 강경 지방의 직조업자들은 숙련공들의 도시진출로 공장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작업능률과 판

---

55) 조병환(1932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6.11.24., 2007.03.07.); 한경용(1939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3.07.).

56) 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57) 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한국 현대 의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96쪽.

매율이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읍내에 산재한 28개 직조업자가 소유한 직조기 수는 150여 대, 여기에서 월 평균 1천 8백여 필의 개성직물을 생산해왔는데, 올 들어 숙련공들의 수가 모자라 월평균 6백여 필의 저조한 생산실적을 올렸다.”<sup>58)</sup>는 것이다.

그 결과, 1975년 기준으로 강경 내 공장은 10곳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창 직조공장을 도와준 것이 바로 강경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동대문시장에서 ‘개성상회’라는 포목도매점을 하던 개성상인이었다. 그의 주선으로 강경 내 소창 직조공장들은 1970년대에는 소창이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할 공업용 특수면포(전자제품 절연재 제조용 면포)를 위탁 받아 직조하였고, 1980년대에는 동대문시장 도매상이 주문한 gaze 손수건을 직조하며 일부 공장이 조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sup>59)</sup>

## 2) 높은 자기자본 비율과 신용 중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것은 개성상인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경에서 직조공장을 하는 개성상인 역시 기본적으로 남의 빚을 얻지 않고 자기자본 안에서 사업을 했다. 이 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데는 제약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직조공장의 원료인 면사를 빚을 내서라도 사두는 편이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보다 컸는데도, 개성상인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조공장 가운데 가장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개성상인이 아니라 과감한 차입 투자를 시도했던 충남 금산 출신의 공장주였다.

벋공장 하는 사람 중에 금산 사람이 인조필하다가 직조공장해서 제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개성 사람들은 남의 돈을 쓰지 않고 공장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남의 돈이 있어서 크게 벌었다. 우리야 자기 자본 한계 내에서만 하니깐 … 돈은 많이

58) 1967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직조업계에 찬바람 숙련 女工들 모자라.』

59)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빌려서, 그 돈으로 면사를 사서, 쌓아두면 면사 값이 오르고, 또 사다가 쌓아두면 면사 값이 올라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직조를 짜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실 값이 올라서 돈을 번 거다. 특히 70년대 유투파동 났을 때 실 값이 더 올랐다.<sup>60)</sup>

하지만 남의 빚을 꺼리는 개성상인의 특성은 1970년대 초반 충남도내 직물업체 대부분이 자금부족으로 은행채 및 사채에 허덕이다가 부분가동상태를 면치 못하였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sup>61)</sup> 1975년 이후 강경 안에서 살아남은 직조공장의 소유주가 대부분 개성상인이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와 같이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가능하면 차입경영을 회피하며 설사 차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개성상인의 전통이었다.<sup>62)</sup> 그렇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성상인끼리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 개성배 공장 운영자는 아니지만, 강경 안에서 미곡판매업을 동업하던 개성상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도 직조공장을 하는 개성상인들이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개성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임시로 자금을 융통해 오곤 했다는 것이다.<sup>63)</sup>

아울러 개성 출신 강경의 소창 직조업자는 신용을 대단히 중시했고 외상이 적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개성사람은 정직과 신용을 가장 강조했다. 굶을망정 신용을 지키려 애썼다. 장사는 신용이 중요하니까 개성사람이 장사를 잘 하는 거다. 개성 1세대는 어음을 받아서 추심은 해도, 자기가 발행하는 일이 드물었다. 어음도 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랬다. 외상을 얻으면, 그 외상을 갚기 전에는 절대 더 물건을 안 가져왔다.<sup>64)</sup>

---

60)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13., 2007.06.27.).

61) 1972년 6월 30일자 『매일경제』 「35業體 휴업·操短」.

62)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10, 85쪽.

63) 정현중(1923년생, 남, 미곡상) 씨 면담내용(2006.06.08.).

64) 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대전 중앙시장 한복판에 명신염료라고 있었는데, 강경 사람들이 주로 그 집 염료를 팔아주었다. 강경 사람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 명신염료에서는 어음 쥐도 좋다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절대로 부도를 안 내니까, 믿고 주기만 하면 좋다고 했다. 그러기는 대구의 '고려기료'도 마찬가지였다. 고려기료는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수선품들을 대 주는 곳이었다. 대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수금을 왔는데, 거기도 강경 어음이라면 믿고 아주 좋아했다.<sup>65)</sup>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인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강경 지역의 상업에서 위탁, 도매, 소매에 이르는 모든 거래의 단계가 외상에서 외상으로 물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상의 비중이 높았다.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조선인의 병폐로 지목되어 왔지만, 실제 시장 거래에서 외상 중심의 거래 관행은 1970년대까지도 여전하였고 전체 거래에서 외상거래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sup>66)</sup> 따라서 개성상인의 외상에 대한 태도는 당시 다른 강경 상인과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장사하는 사람 중에 외상없이 장사하는 사람 없고, 외상을 떼여보지 않은 상인이 없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개성상인의 비중이 높았던 강경 직조공장은 신용이 좋고 외상거래가 적어서 거래처에서 선호하는 곳이었다.

### 3) 껌업을 꺼리는 태도

강경 개성상인의 특징으로는 소창 직조업 외에 다른 껌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개성상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존 종사 업종에 집중하고 문어발 확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존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사업 확장에서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성상인으로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이나 한일시멘트와 같이 시장의 확장성이 넓은 물종의 경우에는 하나에 집중하면서도

65) 최호민(1935년생, 남) 씨 면담내용(2007.06.27.).

66) 김혜숙, 앞의 논문, 2009, 143·146쪽.

성장할 수 있지만, 강경의 소창 생산업체는 사정이 달랐다. 합성섬유 시장은 커지는 반면 면직물 생산, 그 중에서도 하급품인 소창 직조의 전망이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급 물종 자체의 시장 확장성이 작은 상황에서 겸업이나 전업(轉業)을 시도하지 않고 한우물을 파던 개성상인의 직조공장은 결국 성장이 아닌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sup>67)</sup>

1950~1970년대 강경 시장의 상인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전문성 있게 한 업종에 꾸준히 종사하는 상인보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전업과 겸업을 통해 같이 변화해 나가는 상인의 생존과 발전 가능성이 높았다.<sup>68)</sup> 그런데 이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강경의 개성 출신 직조업자들은 대부분 자기대에서 공장 문을 닫고 말았다.

또한 겸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 상인으로서 농업을 겸업하는 것에 대한 태도이다. 개성상인의 특징으로 보편화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1950~1960년대 덕흥직물 유중현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도 농지 구매만은 하지 않으려 한 것은 당시 강경이나 다른 지역 출신의 강경 상인들과는 다른 행태여서 흥미롭다.

강경의 개성 1세대는 직조공장 이외에 다른 겸업은 하지 않고 부동산을 샀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땅이나 집을 샀어도 논을 사지는 않으셨다. 농사도 짓지 않을 거면서 논을 사는 건 농사짓는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하면서, 논 1마지기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사려면 얼마든지 사겠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라며 논은 한 번도 사지 않으셨다.<sup>69)</sup>

---

67) 예외적으로 1980년대 들어 덕흥직물은 2대 사장인 유재섭 씨가 공장을 맡으면서, 새로 직조기를 도입하고 공장의 규모를 키워, 소창이 아니라 의류용 면직물 생산으로 품목을 변경함으로써 한때 성업하였으나 2004년 폐업했다.(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이로써 강경 안에 개성상인이 설립한 직조공장은 전부 문을 닫았다.

68) 김해숙, 앞의 논문, 2009, 258쪽.

69) 유재섭(1947년생, 남) 씨 면담내용(2019.04.14.).

강경에서는 일제강점기에는 농업에서 상업으로 경제적 기반을 전환하는 경로가 존재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는 농업과 상업의 겸업은 상업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업으로 돈을 번 강경 상인들 가운데는 상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논을 사 두거나 그 논에 직접 벼농사를 짓는 일은 흔하였다. 사실 1950~1960년대까지도 강경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라고 해도 농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농민과 다를 바 없어서, 돈이 생기면 땅, 그 중에서도 논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다.<sup>70)</sup> 따라서 개성상인인 유중현 씨가 논을 사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동시대의 강경 상인에게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일제강점기에도 개성상인이 많이 거주하던 강경에 개성 사람이 새롭게 유입된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였다. 시장이 컸던 강경은 조선 후기부터 개성상인이 드나들던 곳이어서, 남한에서 비교적 개성 사람에게 낯설지 않은 지역이었고 이미 거주하고 있던 동향인이 다수 있어서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지연(地緣)이라는 것은 출신 지역을 떠나 있을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고, 개성을 떠나 강경에 있는 개성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개성 출신 자라는 정체성과 동향인(同鄉人)끼리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입된 개성사람들이 면직물 직조업에 대거 종사하게 된 것은 당시 강경에 해방 이후 개성에서 들어온 수직기로 면직물 공장을 설립한 개성상인이 존재하였고, 새로 유입된 개성상인 중에도 개성에서 이미 수직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이 예상치 못하게 북한에 속하

---

70) 김혜숙, 앞의 논문, 2009, 200-202쪽.

면서 급하게 피난을 떠난 개성사람의 대부분은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아서 새로 농토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거나 상점을 개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동향인의 직조공장에 의탁하거나 수직기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면직물 직조업은 개성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다. 아울러 해방 이전부터 송고실업장의 영향으로 직조업이 활발하고 기술적으로도 발달했던 개성에 거주했던 경험도 면직물 직조업에 뛰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강경으로 이주한 개성 사람들의 생업은 직조업으로 수렴되었다. 여기에 기존에 강경에 거주하던 개성상인까지 가세하면서, 강경의 직조업계는 개성상인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경에 들어와 정착하고 면직물 직조업으로 전업(轉業)하여 종사하는 과정에서 개성 사람들은 동향인끼리의 상부상조, 신용 중시, 외상과 빚을 피하고 자기자본으로 사업하기, 겸업을 꺼리고 한우물 파기 등과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개성상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해방 이후 강경으로 이주한 개성상인 1세대는 자신이 개성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영위하였고, 적어도 이들에게서는 개성상인의 명맥이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개성상인으로서의 특징이 강경의 직조업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자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개성상인은 사업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키우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와 혁신이 늦어져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소창이라는 주요상품의 수요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업(轉業)과 겸업을 활발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강경의 개성상인은 대부분 당대에서 폐업을 맞았다.

그 결과, 2019년 현재 강경읍에서 가동되는 면직물 직조공장은 한 곳도 없다. 해방 이후 개성상인이 주도하던 면직물 직조공장은 개성상인 1세대와 함께 1980년대 이후 강경 안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2세에게 대를 물린 일부의 공장도 결국 문을 닫거나 강경 밖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50~1960년대 강경의 상세(商勢)를 주도하던 물품 중 하나였던 ‘개성베’,

즉 소창 생산의 자취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성상인이 생산하던 개성베는 명성과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주제어]

강경(江景), 개성(開城), 개성상인(開城商人), 소창, 면직물, 직조공장, 지연(地緣)

## ■ 참고문헌

- 『고려시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 坂上富藏, 『最近江景事情』, 京城: 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 \_\_\_\_\_, 『江景事情』(附 米ノ江景), 群山: 町井印刷所, 1928.
- 善生永助, 『朝鮮の市場』, 京城: 朝鮮總督府, 1923.
- 張在洽,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京城: 副業世界社, 1927.
-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 \_\_\_\_\_,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 \_\_\_\_\_,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2009.05.
- 권태억, 『韓國近代綿業史研究』, 일조각, 1989.
- 김성수,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 - 개성상인정신 연구』, 『경영사학』 17-2, 한국경영사학회, 2002.06.
- 김종규 외 구술, 서문석 편집, 『고급기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본 한국 면방직공업의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김혜숙, 『1950~1970년대 江景 商人의 존재양상과 상거래 관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논문, 2009.
- 노혜경·노태협,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한국경영사학회, 2012.06.
-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 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10.
- \_\_\_\_\_,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 \_\_\_\_\_, 『월남 개성인의 정착과정과 開城의 遺産』, 『學林』 42, 연세사학연구소, 2018.9.
- 李榮昊, 『19세기 恩津 江景浦의 商品流通構造』, 『韓國史論』 1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 장석윤·우지형·이덕기·박남석, 『한국근세과학기술100년사 조사연구 - 섬유분야 -』, 한국과학재단, 1992.
- 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 - 한국 현대 의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論山郡誌編纂委員會, 『論山郡誌』, 논산군, 1976.
- \_\_\_\_\_, 『論山郡誌』, 논산군,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www.db.history.go.kr](http://www.db.history.go.kr)
- 논산시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 ‘Gaeseong Merchants’ and Cotton Weaving Industry of Ganggyeong, Chungcheongnam-do After Korean liberation

Kim, Hyesuk

(Wonkwang Digital University, a part-time lecturer)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features and the changing aspects of the cotton weaving industry of Gaeseong merchants, who had lived in Ganggyeong-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from Korean liberation to 1970s.

Large number of people from Gaeseong moved to Ganggyeong before and after Korean War, where lots of Gaeseong people had already lived. There were some reasons why many of them engaged in the cotton weaving industry; they did not need much initial capital to start the business and they could expect help from people who came from their hometown and ran weaving factories in advance. Furthermore, their hometown Gaeseong was a well known city where the weaving industry had been developed.

Since then, Gaeseong merchants, the leaders of the cotton weaving industry of Ganggyeong, had ran their business with keeping their identities of Gaeseong people in mind. In their settlement and business process, they showed some characteristic behaviors, such as mutual help of people from same region, emphasizing credit, doing business not with debt but with their own money, and focusing on their jobs without sidelines. Those are corresponded with well-known features of Gaeseong merchants and offer that manufacturers in

Ganggyeong, who came from Gaeseong, had succeeded identities of Gaeseong merchant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Gaeseong merchants was not just positive matter to cotton weavers in Ganggyeong. Due to the nature of Gaeseong merchants, doing their business in equity capital, the scale of the business had been limited, and it was difficult to them to respond quickly to market changes because new investment and innovation had been delayed. At the end, with the decrease of the demand for their main products and failure to respond aggressively to the market, most cotton weaving factories operated by Gaeseong merchants in Ganggyeong were closed down in that time.

[Key words]

Ganggyeong(江景), Gaeseong(開城), Gaeseong Merchant(開城商人), cotton fabrics, cotton weavers, a weaving mill, regionalism

논문투고일: 2019년 5월 9일 / 논문수정일: 2019년 6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4일